

여수시-기업, 산단 대체 녹지 발암물질 '책임 공방'

시, '오염 원인' 입주기업 6곳에 토양 정화 명령...기업들 "확실한 증거 없는데 낙인" 반발

여수산단 대체 녹지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두고 지자체와 기업들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산단에 대체 녹지를 조성한 산단 입주 기업 6곳에 토양 오염 조사를 하고 토양 정화를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여수시가 이 녹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의 3

~4배를 초과했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노출 시 피부-폐-심혈관계-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해당 녹지는 이들 기업이 산단 녹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나서 대체 녹지로 조성한 것이다.

대체 녹지에 사용된 토사는 공장 증설 부지에서 나왔다.

이들 기업은 공장 증설 부지에서 28만8000㎡의 토사를 이곳 대체 녹지에 반입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체 녹지를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들 기업이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오염의 책임이 있다

고 봤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한 경우 오염 원인에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녹지를 조성한 기업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염물질이 6개 회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지 않는데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녹지를 조성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홍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단 토양이 오염됐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산단 흙을 사용한 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3대 거리 '걷기 편한 거리' 만든다

장천2길·이수로·팔마로 4일부터 전선 지중화 작업 내년말까지 한전 20억천만원 등 64억5천만원 투입

순천시가 장천2길(새벽거리), 이수로(장인거리), 팔마로(정원거리) 등 3대 거리를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로 만든다.

순천시는 4일부터 이수로-팔마로 구간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 지중화 사업 해당 구간 장천2길 터미널 사거리-OK마트 구간을 시작으로 이수로-팔마로 까지 이어진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하나로 추진된다. 장천2길과 이수로, 팔마로 일대 도로변 지상 전주를 철거한다. 순천시는 도로변 지상 지주를 없애고 경관을 개선해 터미널 일대 상권 거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순천시가 예산 35억원을 쓰고, 한전 20억1000만원, 통신연합 9억4000만원 등 총 64억5000만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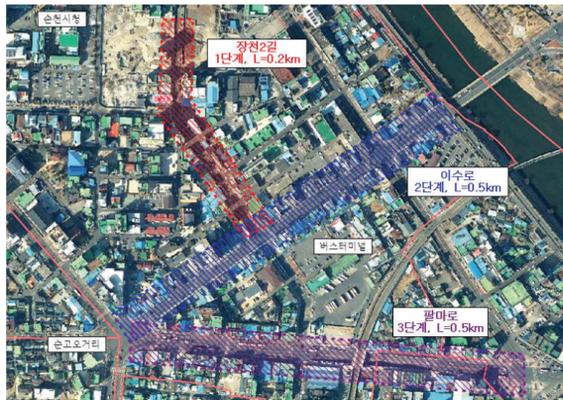
들인다.

지중화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달 장천2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이수로, 내년 3월 팔마로 등 순서로 공사를 한다.

순천시는 착공하는 터미널사거리-OK마트 구간에서는 차량을 우회해 운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도시공간재생과(061-749-3032) 또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 이수로~팔마로 한전 지중화 사업 구간도. <순천시 제공>

(062-260-54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종 기자 ejkim@kwangju.co.kr

'10% 할인' 광양사랑상품권 600억원 완판

광양시는 10% 할인 판매를 한 광양사랑상품권이 총 600억원 판매를 기록하며 이달 1일부터 올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구매는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다.

광양시는 올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신한 등 43곳에서 광양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해왔다. 올해 발행된 상품권은 600억원어치로, 지난해(198억원)보다 40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광양사랑상품권 누적 구매자는

3만3810명으로, 지난해(1만5186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상품권 가맹점은 2951곳에서 5785곳으로, 96.0% 증가했다.

광양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2024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발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구례군이 처음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공유 자전거 시승 행사 지난 1일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구례군 제공>

카카오T 공유 자전거 200대 구례 달린다

구례군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이달부터 공유 자전거 200대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구례군은 지난 1일 구례공설운동장에서 공유 자전거 시승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썬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구례군과 썬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공유 자전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달 1일부터는 일반형 공유 자전거 200대를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운행한다. 썬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 소외지역 개선을 위

해 공유 자전거 운영 수익금을 구례 지역사회에 기부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례읍사무소와 공설운동장 등에 생활형 거점 9개소를 설치한다.

섬진강 대나무 숲길, 수달생태공원 등에는 관광형 거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례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카카오T 앱을 설치해야 한다.

1시간 기본요금은 1000원이며, 이후 10분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생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백혈병·소아암 환자, 순천만정원박람회장서 함박웃음

백혈병·소아암 환자 52명과 가족 등 100여명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구 순천시장)는 지난 2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통해 백혈병·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정원박람회에 초청했다.

<사진>

조직위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맑고 푸른 정원 안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를 희망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람 코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동물원, 관람차 탑승, 문화공연 등으로 짜였다.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국가정원을 둘러본 뒤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가든 클래식'과 '주말 FUN쇼'인 레이저 매직쇼를 관람했다.

지난 8월에 태어난 아기 다람쥐원숭이 '몽순'부터 물범, 사막여우 등 사육사의 설명을 곁들인 어린



이동물원은 단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에게 함박웃음을 머금고 인기가 많은 동물인 알파카와 앵무새 먹이 주기 체험이 열렸으며 "폭신한 잔디도 맘껏 밟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했다. 자리 마련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환아 가족들은 "정원 안에서 공연도 보고, 동물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며 "폭신한 잔디도 맘껏 밟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했다. 자리 마련해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